

계속하는 마음

문화예술 변호사 박주희의 예술 같은 나날들



지은이 박주희

가 격 14,000원

ISBN 978-89-6053-667-8 (03810)

쪽 수 164쪽

발행일 2025년 1월 13일

판 형 120mm*200mm

■ 책 소개

법과 예술, 두 세계를 오가며 자신만의 균형을 조형하는 문화예술 변호사 박주희
다단하지만 단정한 일상을 담은 첫 산문집

다방면의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예술 변호사 박주희가 첫 산문집 『계속하는 마음』을 펴낸다. 문화예술 변호사. 이 조어의 다단함처럼 박주희 변호사의 생활도 단순하지 않다. 그가 모든 법을 다룰 줄 아는 변호사이자 문화예술의 특수한 성격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을 둘러싼 까다로운 법적 분쟁을 처리하면서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의뢰인과 예측을 벗어나는 예술의 일면을 만나는 그의 일상에는 각양각색의 변수가 끊이지 않는다. 법과 예술, 이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오고 가야 하는 복잡함 속에서 박주희 문화예술 변호사는 자신만의 균형을 조형한다.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법의 책임감을 기억하면서도 실리적인 이해타산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만은 없는 예술의 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법과 예술의 문법을 익혀가며 의뢰인을 변호해 맡은 사건을 충실하게 소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매번 새로운 난관을 마주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해 보다 성숙한 단계에 도착하는 문화예술 변호사 박주희. 그의 계속하는 마음이 이 책에 진솔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다독임을 반복하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품은 가능성과 위안에 대하여

변호사의 하루는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구분되지 않는다. 사고는 예고 없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불시에 피해와 마주친 이후 변호사의 시간은 촘촘한 밀도로 숨 가쁘게 흐른다. 피해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황을 낱알이 따져보고 법 조항을 살피며 서면을 쓰면서 법정에서 앓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긴장감이 넘치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담당하면서 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전력을 다하지만 최선과 진심으로도 통과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 박주희는 자신을 다독이기를 택한다. 긴장감과 허탈함을 겪는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법을 배우고 반복한다. 나지막이 부담을 덜어주는 말을 건네며 과열된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고요한 새벽녘에 화과자를 빗거나 찻자리를 가지면서 불안을 잠재운다.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그는 새롭게 일상의 방향키를 쥐고 회복으로 향한다. 피상적인 다짐에 머물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움직여 자신을 돌보면서 실패와 좌절을 마주했더라도 해볼 수 있는 일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장면들은 무수한 애쓰고 다독임이 무용한 것만은 아니라며 이 행위가 지닌 가능성을 보여주고 마음에 스미는 위안을 전한다.

계속하는 마음으로 빛어지는 예술 같은 나날

법으로 누군가를 변호하는 일은 사회가 정한 법률적 약속을 근거 삼아야 하기에 정답을 찾아야 하는 답답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규칙을 따지고 선례를 검토하는 상황을 거듭하며 부담감에

힙싸일 때면 박주희는 예술을 찾아간다. 적막한 미술관에 앉아 작품을 쳐다보고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용감하고 자유로운 예술가들을 떠올린다. 예술은 자신만의 답을 내놓아도 괜찮다고 힘을 빼도 좋다고 말해주는 때문이다. 너그럽게 곁을 내어주는 예술을 만나며 느끼는 해방감과 용기는 계속하는 마음이 닳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예술과 만나면서 일상을 지속하는 박주희는 예술 같은 나날을 빚어간다.

자신이 맡은 사건을 단순히 일로 대하며 표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사건을 이루는 사람과 삶을 존중하면서 인간적인 변호를 위해 노력한다. 눈앞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의뢰인을 살피며 사건 이면에 있는 괴로움과 부침들을 헤아리는 섬세함을 보여준다.

■ 200자 요약

다방면의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예술 변호사 박주희가 첫 산문집 『계속하는 마음』을 펴낸다. 법과 예술 그리고 일과 일상. 두 세계를 오가는 다단함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조형하는 장면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다. 그는 예술의 자유로움과 법의 책임감을 기억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예술과 법의 언어를 익혀간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취약해질 때면 시간을 들이고 몸을 움직이며 자기 자신을 돌본다. 그렇게 계속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호흡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간다.

■ 저자 소개

박주희

문화예술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한 이후 현재 문화예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로펌 제이의 대표 변호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고문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예술법 커뮤니티 부위원장, 대한무용협회 자문 변호사이자 예술가, 예술 기관, 예술 단체,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2020년 〈포브스(Forbes)〉 선정 ART & CULTURE 분야의 파워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 책 속에서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창작 작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갤러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술 시장이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나의 능력과 전문성이 미술계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변호사는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편이다.

「변호사님은 대체 누구 편이세요?」 중에서

첫 만남에서 한 자기소개처럼 그녀는 작업실을 뛰쳐나온 이후로 연필만 잡아도 구역질과 불안증이 올라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 5년이 넘도록 그리기를 내려놓았다가 처음으로 다시 그린 그림이라며 내민 것이 바로 나의 초상화였다. 그녀는 내 덕분에 아픈 과거를 떨칠 수 있었고, 고마운 사람의 얼굴을 그려봐야겠다는 의지가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며

고맙다 했다.

「가끔은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다」 중에서

창밖이 어스름히 밝아지는 게 느껴지면 새날이 왔음을 안다. 그제야 기지개를 펴고 한숨 돌리는데 내 손으로 빚어낸 화과자를 보고 있자니 갓 건져 올린 아침 해만큼 따끈한 뿌듯함이 올라온다. 진득하니 엉겨 붙어 있던 근심 걱정은 스리슬쩍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불면의 밤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서

하지만 전략과 계획으로 직선을 그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점묘화처럼 흔들림이 빚어낸 점들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후자라고 해서 인생을 대하는 진지함이나 신념이 부족한 건 아니다. 꾸준한 흔들림이 무수히 축적되면 전혀 새로운 족적을 남기게 되기도 하니까.

「어쩌다 보니 변호사」 중에서

예술을 동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간혹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은 “정답이 없어서”다. 물론 미술이론가나 전공자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무식한 소리냐며 펄쩍 뛰겠지만 작가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 해도, 나만의 답을 내놓아도 괜찮다는 건 정답을 찾아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묘한 해방감을 준다.

「정답이 뭘까」 중에서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결과로 말한다. 그리고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자존심 따위는 접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부정 탈까봐 문지방도 밟지 않는 수험생 부모의 마음이란 까. 오늘도 마음속으로 되뇌다. ‘참는 변호사에게 승소가 있나니.’

「참는 변호사에게 승소가 있나니」 중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보다 세상의 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어떻게 살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더 집중하는 요즘이다. 이렇게 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몸소 보여주고 싶다.

「꿈 없이 살아가기」 중에서

얼마 전 문화예술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주제로 인터뷰할 일이 있었다. 문화예술 변호사를 스스로 정의하는 단어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랬다. “제 역할은 통역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계에서 쓰는 용어와 상황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법률적인 언어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반대로 판결문이나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문화예술계 의뢰인에게 법률의 언어를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그들과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으로만 접근하면 양쪽 모두 설득할 수 없어요.”

「법의 언어에 털 상처받는 일」 중에서

■ 차례

심호흡

움직이다

납작하게 바라보기

무쓸모의 쓸모

거절하기

변호사님은 대체 누구 편이세요?

그때는 모른다

잠시 차를 마신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고마움을 지켜내는 마음

가끔은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다

멈추다

공부의 위로

완벽하다는 것

불면의 밤을 맞이하는 방법

어찌다 보니 변호사

설명하지 않는 삶

주변인의 삶

정답이 뭘까

예술가를 만나는 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속도 조절

의도된 단절

태도의 부재

나아가다

분노 코드

일하기 싫은 날

구별 짓기

참는 변호사에게 승소가 있나니

꿈 없이 살아가기

우아한 삶

사춘이 땅을 사면 마음이 놓인다

법의 언어에 덜 상처받는 일